

‘대충’이 통하는 시대에 튀는 고지식함



원리원칙대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남들에게 철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게 철저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재빠름과 융통성있는 대처가 업무능력의 잣대로 여겨지는 요즘, 작은 일에도 철저를 기하는 사람은 단번에 ‘고지식하다’는 낙인이 찍힌다.

점차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대학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일단 자신이 귀찮아지면 싫은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이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대충대충이 통하는 요즘 세태에 어울리지 않는 ‘고지식하고 철저한’ 분이 우리학교에 있다.

“학생증 안 갖고 왔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되나요?” 한 학생이 도서관 출입구에서 사정한다. 그러나 통과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 “몇 학년이야? 우리학교 총장님 성함이 뭐야?” 이에 대답한 학생은 무사히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몇가지 테스트를 거쳐 경희대 학생임을 증명받고 나서야 출입을 허락받는다. 도서관을 자주 들르는 경희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광경을 목격하거나 혹은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철저한 출입증 검사로 인해 ‘무서운 아저씨’로 학생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는 분, 바로 중앙도서관 수위아저씨이다. 대학주보는 이번에 창간 기념을 맞아 경희대 숨은 유명인인 ‘중도 호랑이’ 이윤택(63)씨를 만나 보았다. <편집자>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 퇴임하신 아저씨는 우연한 기회에 재작년 10월 경희대 수위직을 맡게 되었다. 아저씨가 오실 당시만 해도 도서관 분위기는 참으로 잡다했다고 한다. 타학교 학생들이 버젓이 출입해 자리잡기가 다반사고 책선전을 나신 잡상인애, 때때로 도둑질을 목적으로 들어 오는 이마저 있어 도서관에서 분실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한마디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도서관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근무 초기 아저씨는 외부인 출입을 급하기 위한 다양한 제재를 시도했다. 학생증이 없으면 일단 출입을 통제했는데 이 장벽을 통과하려는 사람들의 시도 또한 아저씨를 결코 뚫지 못했다고. 화장실이 급하니 봐달라거나 친구 아버지가 위독해서 빨리 친구를 찾아와야 한다는 등의 동정심 유발 작전이 있는가 하면 2,3명이 팀을 이루어 한명이 아저씨께 말을 걸어 유인하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재빨리 출입구를 통과하는 등의 합동 작전이 전개되기도 했다.

“나도 학생들과 다투는 일없이 봐주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지. 근데 한두 번 그냥 넘어가기 시작하면 당장에 외부인 출입이 심해져서 사전에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아저씨는 정말로 철저하게 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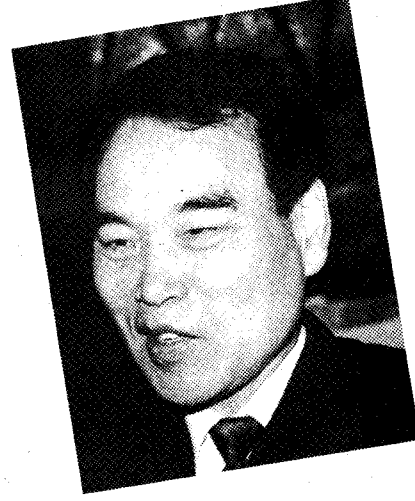
을 통제한다. 타학생 출입증을 사용하다가 걸리면 가차없이 압수당한다. 얼굴을 익혔다고 방심해서도 안된다. ‘아는 학생’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다른학생들도 봐달라고 해서 곤란하다. “며 아저씨는 차라리 엄격해지기로 결심한 것이다.”

말 그대로 엄격한 출입통제 덕분에 도서관은 어느정도 체계를 갖추게 되었지만 모든 학생이 아저씨를 따라준 것은 아니다. “말도 마. 별별 학생이 다 있었지.” 도서관에 공부하러 왔는데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야며 대뜸 따지는 학생은 차라리 귀엽다고나 할까. “아저씨 자식들이나 교육 잘 시켜요!”라고 대드는 여학생이 있는가 하면 건어치우라는 등의 반말을 볼사하는 대학생답지 못한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버릇없이 대들던 학생들을 한참 나무라던 아저씨는 “대개는 나중에 찾아와서 ‘미안해요. 아저씨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디.’ 하고 사과해. 그래도 학생들이 참 순진하지.”라는 말을 덧붙인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학생들 대부분이 잘 협조해주고 전에 분산했던 도서관 풍경을 기억하는 3,4학년 학생들은 아저씨가 오신 후 많이 좋아졌다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귀찮아 하는 학생이 다수지만 몇몇 학생이 수고하신다는 말을 건네며 지나갈 때는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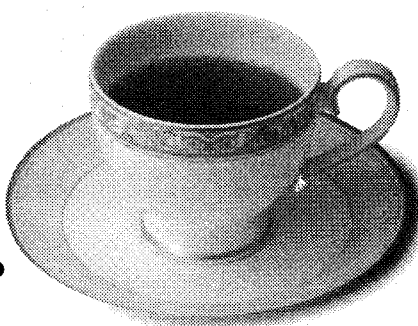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아저씨는 고집이 있다. “올바르게, 남에게 피해끼치지 말고 살라.”고 강조하는 아저씨는 가끔 자녀들과 의견충돌 시엔 자신을 돌아보기도 한다. “우리 손자들을 보면 요즘 학생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며 너무 막대한 할아버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대충 넘어가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수위아저씨의 행동은 분명 지나침이 있다.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일은 소홀히 여기기 마련이고 그런 게 ‘만연’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대충이라는 융통성있는 말이 얼마나 큰 폐해를 낳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함이 부재한 이때, 수위 아저씨의 고지식함은 더욱 빛을 발하는 듯 하다. <강재은 기자>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경희대학교 개교 4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http://www.com



어소세요! 요기는 커피방 웹사이트.

종일 컵과 씨름하신 분들을 위한 방입니다. ^^

지금 리포트뎌에 골치 아프세요? --;

인터넷뎌에 속 쓰리세요? T-T

잠깐 쉬시져... 나도 쉬고, 컵도 쉬고...

나를 돌아보고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이면

언제나 함께하는 향기로운 사이트 -

한 잔의 커피와 마주하는 시간은

푸근한 휴식과 진솔한 자신과의 대화로

우리 생활을 향기롭게 물들입니다.

향기로운 생활문화를 동서식품이 이끌어갑니다

- 동서 커피문화상 ●맥심배 전국 스키 선수권대회
- 동서음악제 ●동서장학회 설립, 운영
- 국군 부대 자매결연

동서식품

http://www.dongsuh.co.kr

Hitel:GO MAXIM